

전남도, 지역중기 정책자금 4500억 용자 지원

인건비·연구개발비 등 3300억 공장 시설투자 정책자금 700억 저신용 중기 경영안정자금 지원 “필요 자금 적기 공급·금리 완화”

전남도가 고물가·고금리 장기화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에 육성자금을 용자 지원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정책자금 용자 규모는 4500억 원으로 △임차료나 인건비, 연구개발비에 사용할 수 있는 은행자

금 3300억 원 △공장 증개축, 설비구입 등 시설투자를 위한 정책자금 700억 원 △저신용·고금리상품 이용 중소기업을 위해 특별경영안정자금 500억 원이다.

은행자금은 3억 원까지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전남도가 대출 이자의 일부(1.1%p~2.0%p)를 매달 지원한다. 우대지원 시 용자 한도는 5억 원, 이자는 2.5%p까지 확대해 지원받을 수 있다. 이밖에 우대 대상은 유망중소기업·강소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소재부품뿌리기술전문기업 등이다.

특히 올해는 민생대책 지원 일환으로 기존 이차보전 지원율에 0.4%p 추가 환급 지원하며, 별도의 신청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 규모는 지난해 대비 500억 원을 확대해 더 많은 중소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책자금은 전남도에서 마련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통해 8년간 5억 원에서 최대 20억 원의 시설투자자금과 운영자금을 저금리로 용자받을 수 있다. 벤처기업은 2.5% 고정금리, 그 밖의 기업은 3.0%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도 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정책자금으로 기업당 3억 원 한도, 1년간 3.9%의 금리로 용자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보증기금 협약보증 대상 기업은 보증서 비율을 95% 적용하고 보증료를 0.2%p 인하받으며, 고금리(4% 이상) 상품을 이용하는 기업은 대환대출도 가능하다.

김형성 전남도 중소기업과장은 “지속되는 고금리, 고회율, 고물가 등 복합위기 속에서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적기에 공급하고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차

보전 지원을 늘려 중소기업의 실제 부담금리를 2%대로 낮췄다”며 “중소기업 경영에 실질적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고 내용 확인 및 온라인 접수는 전남도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 자금시스템 누리집(www.jnfund.kr)에서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061-286-3753),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288-3832~4)에 문의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jhyun.oh@jnilbo.com

전남도, 식품·관광개발 기업 7170억 투자 유치

㈜세아제강 등 6개 기업과 협약 순천·나주·보성 등 271명 고용

전남도가 해상풍력, 관광, 가공식품 업체 등 6개 기업으로부터 7100억여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일자리 창출 등이 기대된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세아제강, ㈜정다운, 프라이빗보성(주), ㈜지에프팜 호남, ㈜지원푸드, 렉스이노베이션(주), 6개 기업과 7170억원 규모의 서면 투자협약을 진행함에 따라 순천, 나주, 보성, 장흥, 함평 등에 271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전망이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세아제강은 울촌제1 산업단지에 287억원을 투자해 해상풍력 타워 구조물을 제작하는 공장을 증설한다.

정다운은 나주일반산단에 300억원을 투자해 가족사 가공 공장에서 발생하는 동물성 부산물을 공급받아 단미사료를 제조하는 공장을 운영한다.

프라이빗보성은 보성에 6045억원을 투입해 자연환경과 해양환경을 기반으로 레저생활을 즐길 주거복합타운을 조성, 이를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와 함께 일자리 창출, 인구 유입 등 지역발전에 큰 도움이 될 예정이다.

식품산업 분야인 지에프팜 호남은 장흥 바이오식품산단에 102억원을 투자해 쌀 관련 가공식품 제조 공장을 신설한다. 지원푸드는 동함평일반산단에 250억원을 투자해 조미김, 김부각, 스낵김을 제조하는 공장을 세운다.

지식정보문화기업인 렉스이노베이션은 나주 혁신도시에 186억원을 투자해 21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 2024년 13회의 대면·서면 협약을 통해 37개 기업과 4조 8066억원 규모의 투자를 이끌었다. 앞으로도 에너지·바이오·이차전지·우주항공·식품산업 등 전남의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투자유치를 할 방침이다.

오지현 기자



김영록 도지사 순천 중앙동 상가 소상공인 격려하고 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10일 순천시 중앙동 상가를 방문, 내수 경기 침체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격려

전남도 제공

광주시, 결식아동 급식단가 지원금 인상

올해부터 9500원으로

광주시는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급식단가 지원금을 올해부터 9000원에서 9500원으로 500원 인상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 급식단가 인상은 물가상승률과 결식아동의 급식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아동에게 영양이 있고 균형 잡힌 식사를 제공하고 아동의 다양한 급식 선택권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정 아동, 교사·사회복지사·통

장단 등이 발굴해 자치구 급식위원회에서 결정한 18세 미만의 결식 우려 아동 1만 6000여명이다.

이들은 일반음식점, 편의점, 패스트푸드점 등 1만6000여 곳의 급식카드 가맹점을 이용하거나 도시락 배달, 지역아동센터 등을 통해 급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지역아동센터의 경우 단체급식의 특성을 반영해 급식단가 지원금을 8000원에서 8500원으로 인상한다.

광주시는 총 예산 224억원을 반영해 결식 우려 아동을 지원한다.

노병하기자

광주시립수목원, 겨울방학 체험프로그램 운영

광주시립수목원은 겨울방학을 맞아 오는 1월22일부터 2월28일까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체험프로그램은 총 3개로, 유치원생(6·7세)과 초등학생(1~3학년)을 포함한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어린이들에게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창의적 사고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식물 이름을 공부하고 나만의 식물을 그려보는 ‘식물, 너 이름이 뭐니?’ △숲해설가 선생님과 함께 겨울눈을 관찰하면서 직접 그려보는 ‘겨

울 눈 속, 겨울눈’ △식물세밀화 작가와 함께 탄생화를 이용해 북마크를 만드는 ‘탄생화로 꾸며보는 북마크’ 등 3개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식물, 너 이름이 뭐니?’는 매주 수요일, ‘겨울 눈 속, 겨울눈’은 매주 목요일, ‘탄생화로 꾸며보는 북마크’는 매주 금요일 시립수목원 방문자센터 교육실에서 열린다. 교육시간은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40분으로 1시간10분가량 진행된다.

비용은 전액 무료다. 프로그램 참가를 희망하는 가족은 오는 14일 오전 10시부터 광주시 누리집 ‘바로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신청할 수 있다.

노병하기자

CES 15곳 참여 전남관 운영 2822만 달러 수출 업무협약

전남도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IT·가전 박람회인 CES 2025에서 전남관을 운영, 혁신 기술력과 성장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며, 2822만 달러 규모의 수출 업무협약을 맺었다.

12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관에는 15개 기업이 참여해 인공지능(AI), 메타버스, 재생에너지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비케이에너지는 미국 A사에 10MW 규모의 그린수소발전기를, 미국 B사에 수상태양광 장비를 공급하는 2802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터빈크루는 미국 C사와 20만 달러

규모의 스마트 가로등 공급 협약, ㈜스마트큐브는 미국 D사와 메타버스 기반 전자상거래 플랫폼 개발 협약을 하며 글로벌 시장 진출 발판을 마련했다.

2년 연속 참가한 ㈜휴먼아이티솔루션은 글로벌기업인 메타(META) 플랫폼에 확장현실(XR) 콘텐츠를 성공리에 입점시켜 월 8000달러의 매출을 기록했다. ㈜비케이에너지는 미국시장 진출을 위해 네바다주에 현지 법인을 설립해 현지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또 ㈜뉴작은 신체 착용기기 없이도 사용할 수 있는 확장현실 플랫폼 기술로 메타버스와 콘텐츠·엔터테인먼트 부문에서 CES 2025 혁신상을 수상했다.

㈜스마트큐브는 3D와 AI를 활용한 스마트 투어 정보서비스를, ㈜네오드림스는

재활치료용 AI 코칭 시스템을 소개하며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기업 기술발표를 참관한 LA선스톤 매니저먼트 벤처캐피탈의 리처드 준은 10일 “전남기업은 CES 2025에서 강조된 AI기술을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등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지속가능한 미래 먹거리와 혁신 솔루션을 창출할 잠재력이 높다”며 평가했다.

김영록 지사는 “CES 2025는 전남기업이 최신 트렌드를 파악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력을 입증할 기회였다”며 “휴먼아이티솔루션, 비케이에너지가 CES에 지속적으로 참가해 성과를 낸 것처럼 지역기업이 첨단기술 발전과 혁신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지역문화유산 한파 대비 안전점검

안전사고 우려 20곳 대상

광주시가 지역문화유산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주로 목조건축물인 지역문화유산이 겨울철 한파에 따른 파손 우려되고 시민 안전사고도 예방하기 위해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자치구, 문화유산돌봄센터와 함께 긴급대응반을 편성해 만취정·화담사 등 지역문화유산 20곳에 대해 ‘한파 대비 현장점검’을 진행했다.

이번 현장점검은 목조건축물, 전통기와지붕 등 눈 적재 하중에 민감한 문화유산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목조건축물의 구조적 취약점에 따라 지붕 제설과 하중분산을 위해 지지대를 설치하는 등 선제 조치도 취해졌다. 또 배수로와 지붕 구조물에 빙설로 인한 물고임 방지시설 점검과 보강을 통해 누수·균열 가능성을 예방했다.

광주시에 이번 점검에서 경미한 문화유산 보수 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즉시 조치하고, 보수예산이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문화

유산 긴급보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폭설로 인한 문화유산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신속하게 문화유산위원을 현장에 투입해 안전조치와 긴급 보수작업도 실시할 예정이다.

광주시에 앞으로도 유관기관과 협력해 문화유산 보호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문화유산 재난·재해 대응체계를 점검·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광주시에 또 매년 상·하반기 문화유산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목조 문화유산의 경우 소방훈련도 병행 실시한다. 이와 함께 20여명의 문화유산돌봄비들이 문화유산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등 문화유산 관리에 힘쓰고 있다.

노병하기자